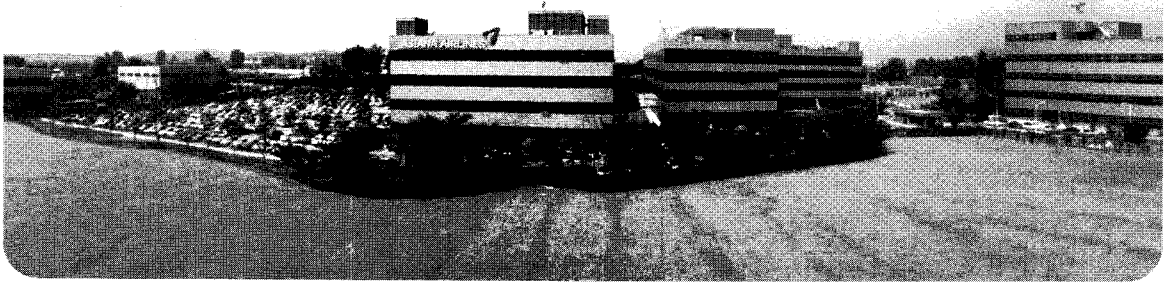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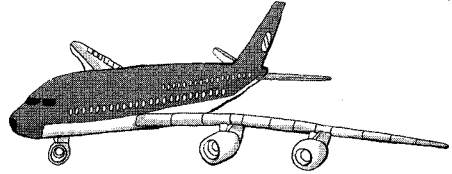


덜쓰고 덜 버리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녹색경영 선도항공사

# 아시아나항공(주)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하게 모시는 것”을 기업철학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2월 17일 창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여객기 61대, 화물기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여객 12개 도시, 13개 노선, 국제여객 20개 국가, 64개 도시, 76개 노선, 국제화물 14개 국가, 21개 도시, 19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03년 2월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인 ‘Star Alliance’ 가입을 통해 전세계 175개국 1,077개 공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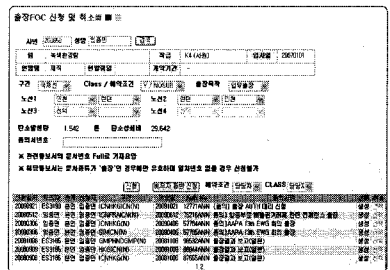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고객처럼 소중한  
The one and only earth. As precious as our customers.

## 아시아나항공의 환경비전 및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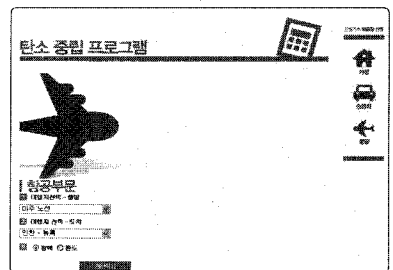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은 환경보호는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고객처럼 소중한’ 라는 환경 슬로건과 환경엠블렘을 만들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항공사’ 라는 환경비전과 함께 1)투명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 2)자원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3)배출 최소화, 4)임직원이 함께하는 환경활동 이라는 4가지 환경 방침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 국내최초로 도입한 탄소상쇄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은 글로벌 이슈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 5월, 임직원 출장 대상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2009년 7월부터는 에너지 관리공단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 임직원 출장 대상 탄소상쇄 프로그램 〉



〈 탄소중립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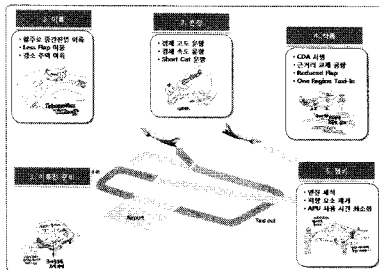
항공 부문을 통해 고객 대상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5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0년 3월까지 적립된 약 1억원의 탄소상쇄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가평꽃동네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설비 설치, 국회 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센터를 후원하는데 사용하였다.



〈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 〉

**온실가스 감축실천 탄소성적표지 인증**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4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항공운송서비스 (A330-300기종, 김포-하네다 노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항공 운송서비스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탑승객 1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이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럽노선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 항공 부문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편입에 대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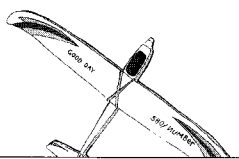


〈 항공기 운항 사이클 〉

**운항 전 과정을 통한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연료절감 방안은 이륙 전에서부터 착륙 후 정비에 이르기까지 운항 전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륙시 지상활주거리를 줄이기 위한 활주로 중간진입, 연속강하접근 착륙, 착륙 후 주기장 진입 시 일부 엔진을 꺼 연료를 절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료를 절감하고 있다. 2008년 기준 합리적 추가 연료 운영 및 목적지 계획 연료 잔량 감소를 통해 약 17,000톤의 CO<sub>2</sub>를 감축하였고, 항공기 자체 보조전원 공급장치 대신 항공기 계류장에 설치된 지상 동력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약 7,000톤의 CO<sub>2</sub>를 감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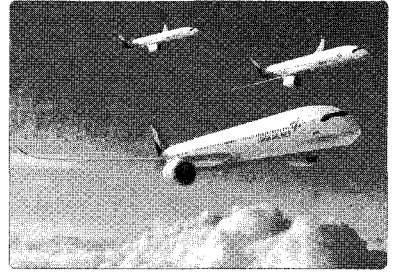
기내에서는 물품 경량화를 추진하여 연료 절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기내 서비스용 카트를 27kg 제품에서 20kg 제품으로 교체하여 연간 약 800톤의 CO<sub>2</sub>를 감축하였고, 승객용 음용수는 물론 화장실용 물의 탑재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약 1,000톤의 CO<sub>2</sub>를 감축하였다. 또한 엔진 내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엔진 세척을 통하여 2008년 약 7,000톤의 CO<sub>2</sub>를 감축하였다.



**신소재 사용, 친환경적인 차세대 항공기 도입**

아시아나항공은 차세대 주력기종을 에어버스사의 최신 기종인 A350XWB로 확정하여, 총 30대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최초 인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350XWB는 에어버스가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현재 개발중인 항공기중 가장 최신 버전의 중장거리용 중

대형 항공기로 기존의 동급 항공기 대비 더 넓고 편리한 최적의 객실 공간과 최첨단 기내설비로 고객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소재 사용을 통한 기체 경량화와 공기역학적 기술 집약으로 기존 항공기 대비 20~30%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가진 고유가 시대 최적의 항공기이며, 저소음과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친환경적인 강점도 지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기간의 차세대 기종 검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고객성향과 시장통계 분석, 다양한 차세대 기종간 성능비교 분석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수행, A350XWB를 선정하였다.



〈 A350XWB 〉

### ASIANA GREEN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ASIANA GREEN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7월부터 총 4차례의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 가이드, 그린생활 수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Green Travel, Green Life 탄소 줄이기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여행객들에게 탄소 줄이기 동참의 의미로 친환경 메모지, 꽃씨, 그린 생활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함으로써 일상 생활 및 항공여행 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Asiana Green 캠페인 발자국 〉

### ASIANA & ANA 공동 식목행사

아시아나항공은 '함께 가꾸는 환경'을 테마로 2008년 11월부터 일본 ANA 항공과 한·일 양국을 오가며 공항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공동 식목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4월 인천공항 인근에서 2차 행사, 2010년 3월 요나고공항 인근에서 3차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4월 인천공항 신도시 세계평화의 숲에서 4차 공동 식목행사를 갖고, 생명의 숲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약 200명이 소나무 650그루 및 관목 250주를 식재하였다.

향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절감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녹색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등 녹색경영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Green Travel, Green Life 탄소줄이기 캠페인 〉

